



#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

이윤수 최인

서강대학교 경제학부

# 1. 신정부 경제정책과 소득 주도성장이론

## <신정부 경제정책>

- 신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, 혁신성장, 공정경제로 요약됨.

### 1) 소득주도성장: 수요 측면의 경제 성장 견인

- 최저임금 인상(2019년 8350원, 인상률 10.9%):  
가계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 유도
- 근로시간 주 52 시간 단축 : 저녁이 있는 삶과 휴식과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

### 2) 혁신성장: 생산성 중심의 공급 측면 경제성장 견인, 혁신성장을 통한 3% 대 성장세 유지

### 3) 공정경제: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성장의 성과가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함

-> 성장, 분배의 선순환 달성

## <소득주도 성장이론>

- 소득주도성장이론의 요약과 문헌소개  
이상헌 (2014), “소득주도성장: 이론적  
가능성과 정책적 함의소득주도성장:  
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,”  
사회경제평론
- 소득주도성장모형은 경제성장의 수요 측  
면에 주로 집중 (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에  
의해서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 의해서도  
결정된다고 봄)
- <총수요측면>

총수요함수 :

$$Y = C(Y, w) + I(Y, w, z_I) + G(Y, z_G) + NX(Y, w, z_{NX})$$

임금상승이 투자와 순수출을 감소시키지 않으면

소비( $C$ )와 소득( $Y$ )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.

● <총공급 측면>

실질임금 증가 시 기업효율성과 노동생산성 역시 증가할 수 있음

1) 실질 임금 증가는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효율성 증진 유도

2) Kaldor-Verdoorn 효과에 따라 실질임금 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견인되면 간접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역시 증진됨

3) 효율임금가설에 따라 실질임금 증가는 근로의욕 고취, 저개발국 근로자의 영양섭취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짐.

## 2. 총수요측면: 지출의 장기 균형 성장률 변화

- 2013Q1-2017Q2 기간과 2017Q3-2018Q3 기간의 지출 별 장기 균형 성장률 비교

- 시계열분석의 intervention analysis 사용

- 계량분석 모형: AR model with an intervention variable

$$X_t = \mu + \delta I\{t \geq 17Q3\} + \alpha_1 X_{t-1} + \dots + \alpha_p X_{t-p} + u_t$$

Key parameter:  $\delta$

- 데이터: 분기별 yoy 성장률 데이터 사용

- 단순 표본 평균 비교 (%)

기간	GDP	민간소비	자본형성	수출
13Q1-17Q2	2.97	2.11	4.98	2.18
17Q3-18Q3	2.84	2.96	2.01	2.65
차이	-0.13	+0.85	-2.97	+0.47

● GDP 분석

$$\hat{X}_t = 3.02 - 0.23 I\{t \geq 17Q3\} + 0.0003X_{t-1} \\ + 0.17X_{t-2} - 0.19X_{t-3} - 0.75X_{t-4}$$

장기평균 변화: -0.13

● 민간소비 분석

$$\hat{X}_t = 2.12 + 0.71 I\{t \geq 17Q3\} + 0.37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+1.14

● 자본형성 분석

$$\hat{X}_t = 3.65 - 2.04 I\{t \geq 17Q3\} + 0.93X_{t-1} \\ + 0.25X_{t-2} - 0.58X_{t-3}$$

장기평균 변화: -5.14

● 수출 분석

$$\hat{X}_t = 2.12 + 1.20 I\{t \geq 17Q3\} + 0.42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+2.07

● 장기 균형 성장률 변화 요약

	GDP	민간소비	자본형성	수출
변화분	-0.13	+1.14	-5.14	+2.07

### 3. 총공급측면: 종사상 지위 별 취업자의 균형 성장률 변화

#### ● 단순 표본 평균 비교 (%)

기간	전근로자	비임금근로자	임금근로자
13Q1-17Q2	1.42	-0.75	2.24
17Q3-18Q3	0.76	-0.15	1.07
차이	-0.67	+0.61	-1.17

#### ● 전체고용자 (비임금근로자+임금근로자)

$$\hat{X}_t = 1.23 - 0.53 I\{t \geq 17Q3\} + 0.75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-2.07

#### ● 비임금근로자 (자영업자+무급가족종사자)

$$\hat{X}_t = -0.57 - 0.58 I\{t \geq 17Q3\} + 0.77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-2.53

#### ● 임금근로자

(상용근로자 + 임시근로자 + 일용근로자)

$$\hat{X}_t = 1.79 - 0.39 I\{t \geq 17Q3\} + 0.82X_{t-1}$$



장기평균 변화: -2.19

- 상용직근로자 (고용계약 기간이 1 년 이상인 정규직원)

$$\hat{X}_t = 3.35 + 0.26 I\{t \geq 17Q3\} + 1.22X_{t-1} - 0.41 X_{t-2}$$

장기평균 변화: +1.39

- 임시직근로자 (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 이상 1 년 미만인 자)

$$\hat{X}_t = -0.88 - 0.90 I\{t \geq 17Q3\} + 0.78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-4.03

- 일용직근로자 (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자)

$$\hat{X}_t = -1.60 - 2.31 I\{t \geq 17Q3\} + 0.46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-4.32

● 장기 균형 성장률 변화 요약

	전체고용자	비임금근로자	임금근로자
변화분	-2.07	-2.53	-2.19

	상용직근로자	임시직근로자	일용직근로자
변화분	+1.39	-4.03	-4.32

## 4. 총공급측면: 생산성

### 4.1 노동생산성

#### ● 단순 표본 평균 비교 (%)

기간	물적생산성	부가가치생산성
13Q1-17Q2	-0.19	0.73
17Q3-18Q3	3.74	5.74
차이	+3.93	+5.01

#### ● 비농업 전산업 (물적생산성, 산업생산지수)

$$\hat{X}_t = -0.09 + 3.58 I\{t \geq 17Q3\} - 0.17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4.38

#### ● 비농업 전산업 (부가가치생산성, 불변부가가치)

$$\hat{X}_t = 0.66 + 5.23 I\{t \geq 17Q3\} - 0.17X_{t-1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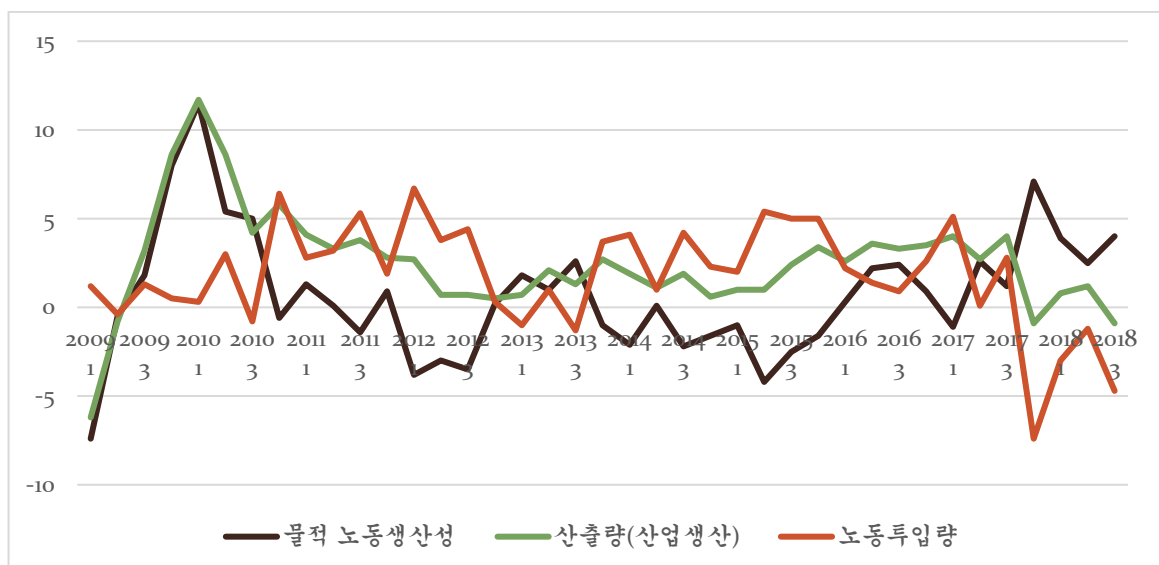
장기평균 변화: 4.4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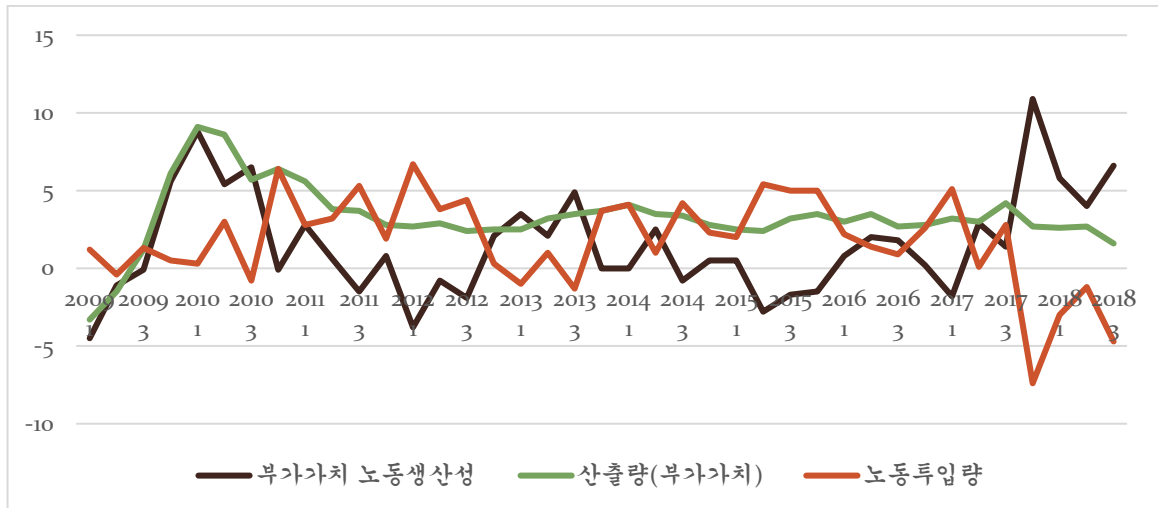
#### ● 산업별 장기 균형 성장률 변화 요약

변화분	물적생산성	부가가치생산성
전산업	4.38	4.48
제조업	-7.71	7.60

건설업	-0.98	-14.9
도소매업	5.85	4.73
운수업	2.90	1.68
음식숙박업	-1.17	-0.87

-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 특히, 도소매업의 생산성 증가.
- 하지만 생산성 상승에 대한 해석에는 유의해야 함
-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생산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임
- 노동생산성 측정치의 분자는 생산액 혹은 부가가치





- 위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성은 산출량(부가가치)의 증가가 아닌 노동투입량의 감소에 의해 상승
- 부가가치는 큰 변화 없음.
- 산업생산은 크게 감소.

## 4.2 총요소생산성 (Total Factor Productivity)

- Solow Residual (국민계정)

$$\hat{X}_t = 0.15 - 0.05 I\{t \geq 17Q3\} + 0.07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-0.05

- 산출량

$$\hat{X}_t = 2.98 - 0.25 I\{t \geq 17Q3\} - 0.07X_{t-1} \\ + 0.23X_{t-2} - 0.19X_{t-3} - 0.78X_{t-4}$$

장기평균 변화: -0.05

- 노동투입량

$$\hat{X}_t = 1.19 - 0.33 I\{t \geq 17Q3\} + 0.77X_{t-1}$$

장기평균 변화: -1.41

- 총요소생산성은 감소

## 5. 국내소비

-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소득이 국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있음.

■ 내수 혹은 국내소비(e.g.,  $C - IM$ )

- 산업별 장기 균형 성장률 변화 요약

	물적생산량 변화분
전산업	-3.16
제조업	-2.12
서비스업	-0.52
건설업	-7.55
도소매업	1.11
운수업	0.74
음식숙박업	-3.62

-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경우도 도소매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 감소

서비스업 생산 총지수	-0.47
수도,하수 및 폐기물처리 생산지수	0.14
도매 및 소매 생산지수	1.19
운수 및 창고 생산지수	0.75
숙박 및 음식점 생산지수	-3.63
정보통신업 생산지수	0.26
금융 및 보험 생산지수	-4.16
부동산업 생산지수	-6.09
전문, 과학 및 기술 생산지수	-2.16
사업시설 관리 생산지수	-0.60
교육 서비스업 생산지수	-0.96
보건 및 사회복지 생산지수	-4.71
예술 및 스포츠 생산지수	-0.99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생산지수	1.43



- 노동시간의 감소는 임금상승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
- 노동 투입의 산업별 장기 균형 성장률 변화 요약

	노동투입 변화분
전산업	-4.32
제조업	-4.42
서비스업	-4.20
건설업	6.14
도소매업	-4.06
운수업	2.09
음식숙박업	-1.52

## 6. 결론

### 1) 실증 분석결과 요약

- GDP 성장률감소 (-0.13%), 소비성장률증가 (+1.14%), 투자성장률 감소 (-5.14%)
  - 고용성장률 감소 (-0.16%), 특히 임시직, 일용직 근로자의 성장률 감소
- 노동생산성 성장률증가
  -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생산성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.
-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감소 (-0.05% ~ -1.14%)

### 2)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평가

- 2018Q3 까지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,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

-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, 고용감소, 중요소생산성 감소는 잠재적 경제성장율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됨
-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,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
- 총소비의 증가도 국내소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내수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
  -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 감소
  - 음식 숙박, 예술 및 스포츠, 교육 서비스업 등 감소. 노동시간의 감소(저녁이 있는 삶)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음

### 3) 분석 내용의 한계 및 향후 검토 과제

- 성장에 대한 검증 아님 (소득주도성장론이 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은 아님)

- 본 연구는 “단기적” 소득 증가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 (“소득주도 성장”의 경기부양효과)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움
  - 성장은 생산성, 투자, R&D의 증가를 수반해야 할 것임.
  - 분석 결과, 투자성장률은 사실상 감소.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분석 필요.
-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향후 연구할 필요 있음
-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시간의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